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43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6월 30일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해상풍력 단지’ 해남 화원산단 개발 18년 째 ‘무풍’

대한조선, 산단 개발 ‘미적’… 산업계 “시행사 교체” 목소리
전남도 ‘글로벌 에너지 산업 허브’ 도약 구상에도 차질 우려

대한조선이 2007년 해상풍력 배후 산단조성을 목표로 개발에 착수한 이래 18년째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해남군 화원면 화원산업단지 일대.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배후단지를 목표로 했던 해남 화원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면서 전남의 글로벌 에너지도시 조성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어가야할 시기에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배후단지 조성이 미뤄지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에너지산업 허브로 도약하려는 전남도의 구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남에 본사를 둔 선박 제조기업 대한조선이 산단 개발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가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산단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 2007년 화원산단 개발에 나섰지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단 개발은 이뤄지지 않은데다, 기업 유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에 본사를 둔 선박 제조기업 대한조선은 애초 자신들이 소유한 해남군 화원면 조선소길 일대 부지 등을 합해 219만㎡(66만평) 면적을 화원산단으로 조성하려다 조선 경기 침체 등으로 보류해놓았다가 2년 전인 2023년 해상풍력 배후단지로 개발키로 변경했다.

대한조선은 당시 전남도, 해남군과의 협약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해남 화원산단에 해상풍력 연관 기업 유치를 위한 배후단지 조성과 산단 지원 항만 개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대한조선은 전남도·해남군과 협의를 거쳐 당초 조선산단으로 계획된 화원산단을 해상풍력 배후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남도와 해남군은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입주기업 유인책(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협약에 담았다.

대한조선은 당시만 하더라도 오는 2026년까지 민간개발 방식으로 화원산단 배후부지 219만㎡ 중 111만㎡(34만 평)를 해상풍력 연관기업에 우선 분양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공용 항만도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한조선이 산단 개발 계획을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대한전선의 화원산단 투자 계획도 무산된데다, 오는 2028년까지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과 관련된 전초기지 육성을 위한 조성 협약도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산단 개발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막대한 영업이익을 보이면서 주식 상장까지 검토하는 여건 등을 고려하면 산단 개발을 위한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제적 투자로 풍력산업 분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는 커녕 사업 시행권을 갖고도 개발을 미루면서 지역 발전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관련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 시행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화원산단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시행사로의 교체를 주장하는 산업계 요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산단조성은 시행자가 선(先)투자 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그러나 대한조선은 기업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보여, 땅값 상승만 기다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조선의 화원산단 시행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때라고 덧붙였다.

대한조선은 화원산단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이유가 작용했다고 해명했다. 우선 지난 2007년 산단 조성권을 따냈지만, 2009년 모기업의 경영상황 악화 및 조선산업 부진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이후 새로운 주인을 찾는 데 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했던 문재인 정부시절만 하더라도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를 억압하는 정책 탓에 기업들의 문의가 적었다고도 했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모산업(해상풍력) 비전이 나오지 않아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며 “투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1000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조성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단 또한 부동산이므로 기업들도 경기가 회복되야야 입주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최근 정부의 발표로 서남권 RE100 산단 조성이 유력시되는 상황인 점을 들어 대한조선이 화원산단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기업과 투자 협약을 위한 사전 단계에 돌입한 상태”라며 “최근 신안 앞바다에 해상풍력 계통을 확보한 기업들도 화원산단 입주를 고민하는 중으로 대한조선과 협력해 화원산단 내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일본, 미국과 관세협상서 농산물 추가 개방
농민들 ‘쌀·소고기’ 시장 확대 우려 커졌다

전농 “약속 어기면 강력 투쟁”

일본이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선택하면서 전남을 비롯한 전국 농민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3·10면〉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韓美) 통상협의에서 농산물 카드로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는 쓰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이 한국에도 일본과 비슷한 조건의 관세협상 조건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항상 정부는 농업을 보호한다고 공언했지만, 이면합의 등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을 해왔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23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일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라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올해 4월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4%로 예고했다가 지난 7일 25%로 올린 바 있는데, 여기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일본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일인 다음달 1일을 앞두고 일본 외에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농산물 등에 대한 규제 적용 면제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췄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세율 인하 조건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선택하면서 국내 농심(農心)은 동요하고 있다. 미국은 연령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과,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정부는 한미(韓美) 통상협의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농산물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고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물질 검출 가능성이 크다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남의 경우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쌀 시장을 확대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부가 쌀과 소에 대한 시장 확대는 거부할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강광석 사무처장은 “정부가 농민과의 약속을 어기면 강력한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쌀·소 시장 확대 거부안이)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협상과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가난한 시·군에는 안 찾아오는 농촌왕진버스 ▶6면
KIA 박찬호 “신바람 야구 하겠다”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경기도 양주 장흥유원지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사퇴

강선우(사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사퇴했다. 〈관련기사 3면〉

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첫 현역 의원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